

與 당권레이스 '도로 친문'되나

원내대표 윤호중 무난 승리 초선 중심 '쇄신' 일보후퇴 文 레임덕 위기 절집 가능성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윤호중 의원이 무난히 승리하면서, '도로 친문' 현상이 당권레이스에서도 반복될지 주목된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나온 친문 이선후퇴론을 무색하게 하는 압도적 표차인 만큼 당대표 선거에선 쇄신을 위한 '견제 심리'가 작동할 것이라는 관측과 원내에 이어 당권마저 친문이 '씩씩이' 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총투표수 169표 중 104표를 얻어, 65표를 얻는데 그친 '비주류 쇄신파' 박완주 의원을 큰 표차로 따돌렸다.

초선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쇄신 바람'을 타고 박 의원의 막판 추격이 접어들었지만, '친문 당권파' 윤 원내대표가 여유롭게 이긴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며 내달 2일 새 지도부 선출 때까지 민주당의 지휘봉도 잡게 됐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 등 당권주자 3인방 모두 범친문으로 분류되나, 이중 홍영표 의원이 '친문 핵심'으로 가장 선명한 색깔을 갖고 있다. 때문에 당 일각에선 원내를 친문이 가져간 만큼 당권은 탈계파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또 쇄신없이 '도로 친문'이라는 말이 나올 테니 당대표 선거 때는 당의 혁신과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슬로건이 더 잘 먹힐 수 있다"며 "균형감각이 발달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도 뉴시스에 "너무 청와대와 밀착돼있는 후보보다는 조금 거리를 유지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냐는 기류가 있을 것"이라며 "대의원에서 전략적 투표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재보선 참패 후 문재인 대통령의 '위기가 닥쳐오면서' 전당대회에



서 친문 강성 지지층을 도리어 결집시켜 '친문 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4월 3주차(13~15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2%로 각각 취임 후 최저치와 최고치를 경신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통상 정가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 30%선의 붕괴는 본격적인 레임덕(권력 누수) 국면의 진입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당(31%)을 하회해, 당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도 상당폭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주자 지지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25%, 이재명 경기지사 24%, 이낙연 전 대표 5% 순이었다. 재보선 참패 후에도 비주류인 이 지사의 지지율은 별 영향이 없었지만 정부·여당 지지도와 연동성이 강한 이 전 대표 지지율은 폭락했다.

여기에 이 지사가 경기도만의 '독자백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마이웨이에 나선 것도 친문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친문 진영의 입장에서 당권 사수가 절실한 이유다. 자극받은 강성 친문 권리당원들도 물론 공산이 크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데다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당권마저 뺏겨 버리면 향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국 당권을 놓지 않기 위해 더 결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취재본부김승호기자

야권 앞에 놓인 두 가지 선택지...제3지대냐, 신당 봉쇄냐

야권 재편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양상이지만 해계모니를 잡기 위한 수싸움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범야권의 합종연횡에 따라 차기 대선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 금태섭 전 의원이 어느 쪽과 전략적 '동맹'을 맺을지도 주목된다.

정계개편을 앞둔 야권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으로 관측된다. 제1야당이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통해 이른바 '국민형제'가 통합주도권을 쥐고 제3지대의 신당을 봉쇄할 것인지, 아니면 제3지대의 신당 출현이 야권에 지지변동을 일으켜 제1야당의 힘을 무력화할 것인가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합당에 속도를 내는 이면에는 범야권의 통합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을 깔아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와 합당 중 우선순위를 놓고 한때 혼선도 있었지만 통합 논의가 빨리 진행되면 선(先) 통합 후(後) 전당대회, 반대로 협상이 늦어지면 전당대회를 먼저 치르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당은 당원을 상대로 합당

국민의힘이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합무드가 무르익는다면 국민의당과 합당을 통해 통합주도권을 쥐게 될 공산이 크다. 결국에는 대권행보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금태섭 전 의원이 구상 중인 제3지대 신당을 봉쇄하는 전략이 될 것이라

국민의힘, 의원 결의로 야권 통합신당 탄력 '국민형제' 통합 시사되면 야권 재편 구심점 尹, 제3지대 합류시 제1야당 무력화 가능성

에 관한 내부 의견수렴을 다음 주 후반에 마치는 대로 합당 시기와 절차 등을 당 지도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국민의힘과 합당 추진을 공언했고, 별도의 지분 요구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두 당의 통합에는 큰 장애물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정당, 적폐청산 악연 등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주저하고 있는 윤 전 총장으로서 제3지대 신당을 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여기에 만약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진 전 비대위원장까지 합류해 제3지대에 힘을 실어준다면 야권 구도는 제1야당 대신 제3지대로 급격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 전 총장은 재보궐선거 정국에서도 여당 대신 야당에 민심이 쏠리도록 중요한 국면마다 정치적 메시지를 내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다. 아직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지 않고 유력 정치인들과의 회동을 고사하고 있지만 각계 전문가를 만나며 국정학습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선 이쯤되면 윤 전 총장이 대권에 발을 들여놓은 것과 다름없다고 해석한다.

야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과 달리 윤 전 총장은 부동의 1위를 달리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지지율을 순식간에 따라잡았고, 여야 통틀어 가장 무시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진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위해 신당을 창당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다면, 범야권은 제3지대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되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뉴시스

신민호 전남도의원, 청년정책 플랫폼 토론회 '성료'



원희룡 "김부겸 형, 총리자리 앉혀진 무대소품 안됐으면"

金, 1999년 원희룡 한나라당 통해 정계 입문 시켜

야권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문재인 정부 세번째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에 "청문회 하기 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라. 그게 안되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원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

보자를 '형'이라 지칭하며 "격정이 돼서 오랜만에 글을 써본다"라며 편지 형식의 글을 올렸다.

1999년 원 지사는 당시 여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와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모두 정계 입문 제의를 받았는데,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던 김 후보자가 그에게 서울 지역구 공천을 약속하며

한나라당 입당을 권유했고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여러 싱크탱크에서 함께 활동했다.

원 지사는 "백신대란으로 국가가 위기이고 후임 총리 청문회와 인준절차가 시작도 안했는데 총리는 떠나버리고 대행체제가 됐다"며 "후보자가 국민들의 분노를 희석시키는 쇼를 위한 분장용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탁

굴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민호 의원은 "우리지역 젊은 청년들이 취업과 학업 등의 이유로 수도권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 점점 줄어드는 청년 인구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문제"이라며 "청년이 일하고 머무는 행복남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및 청년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현민 비서관의 행사기획에 따라 총리 지리에 앉혀진 무생물 무대소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